

정 책 토 론

우리나라 教育制度와
讀書教育

李 丙 起

<경기고등학교 사서교사>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은 물론 경험확장이 요청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독서태도, 지식 및 기술을 습득케 하고 독서능력을 육성하고 학습욕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독서교육 또는 독서지도는 학교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로부터 현대교육에 이르기까지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강조해온 만큼 독서지도 및 교육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독서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대상 등 체계적 종합적인 준비없이 각 학교마다 각양각색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하다 보니 학교가 입시전문생을 길러내는 산실이 되었고 교사들 또한 입시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참다운 독서교육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대학입시에 논술시험이 반영된다 하니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은 학교에서 독서지도시간을 배정했으나 논술제도가 폐지되니 독서교육도 점차 사라지고 말았

다. 금년부터는 다시 수능능력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독서의 필요성이 가중되자 대학입시나 학과 성적과 관련하여 독서교육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출판되고 있는 관련 참고서를 보면, 종합적 사고력을 키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대학수능능력시험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입시산업만 난무함으로써 독서마저도 입시대비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바람직한 독서는 지적 호기심과 자발적 동기유발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의 독서형태는 또 다른 시험부담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독서교육이라 함은 사회생활에 적응할 독서력과 독서에 의한 인간형성을 구체적,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교육활동이라 하겠다. 이제까지의 독서교육은 교과영역면에서 국어과의 일부로 간주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1996년부터 시행되는 신 교육과정에는 독서과목도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어과의 독서지도는 목표, 내용,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독서영역이 문학에 치중됨으로써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도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독서교육은 특정교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교육은 학교교육의 전 영역과 관련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이야말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독서활동의 장이요, 전 지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 정리, 열람토록 하는 교육공간이요, 독서자료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으로써 학교도서관이 육성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할 사람과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자습실이나 도서보관창고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독서교육은 체계적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독서습관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운영할 사서교사의 배정이 없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교육에서 올바른 독서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독서교육은 학습활동의 전과정과 관련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독서교육은 올바른 독서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 때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낙후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각급 학교에 전문 사서교사를 배정하고 독서교육을 교과과정화 해야 한다.

다섯째, 각급 학교 독서교육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2. 본 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독서환경과 독서의식을 고취시키고 개선하고자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국적인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을 통한 독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성산문고, 복음자리도서관, 한신문고, 관악현대아파트도서관, 보호관찰소등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서관운영교육 및 독서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 및 독서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며 동네마다 직장마다 독서봉이 조성되었을 때 독서를 통한 시민들의 인격형성은 물론 정신을 건강하게 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도서관에서는 보호관찰소에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양서보내기 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뜻있는 독자들이 후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봉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간의 지속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교육 및 주민독서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책의 해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진흥법 제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제 안

문화체육부에서 '93년을 책의 해로 정했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 도서관계는

공공도서관의 독서운동사례 및 개선방안

鄭 正 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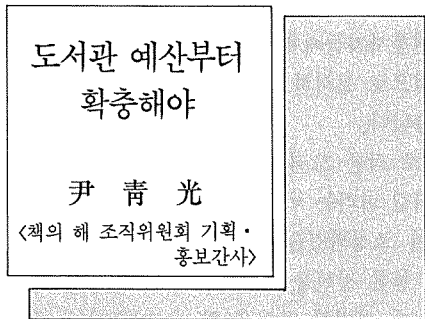
(서울시립 종로도서관 열람과장)

1. 서 론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봉사목적은 범

물론 출판계, 교육계 등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여 상호간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교환, 보완하여야 보다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정신문화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이끌어 왔습니다만 책의 해를 통하여 몇단계 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서관은 입시공부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 관계자들이 어찌 도서관을 입시공부방으로 만들고 살았을 것인가?

도서관은 책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좋은 책을 시민에게 대출해 주어 국민의 교양수준을 높이고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시민의 문화광장으로서 전시회와 교양강좌, 감상회등을 열어 시민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편성 집행된 문화체육부의 예산이나 도서관의 예산을 보면, 도서관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도록 강요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일본의 공공도서관 1개소가 한달에 약 7천만원의 도서관구입예산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월 겨우 1백22만원의 도서관구입예산 밖에 없으니, 과연 도서관이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학교도서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야구팀, 축구팀의 1년 예산은 수억원을 쓰고 있으면서도 도서관이나 도서실 예산은 참으로 언급할 수도 없을 만큼 빈약한 형편이고 보면 학교도서관이나 도서실 또한 제기능을 다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제기능을 다하게 하자면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도서관의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좋은 책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요,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제이무리 좋은 방안이 백출된다 하더라도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행정부에서도, 입법부에서도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마음의 양식인 책을 ‘구입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전수하는데는 돈을 쓰려 하지 않으니, 이런 풍토아래서 도서관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도서관에 책을 채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당국자들로부터 “체력은 국력”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력은 독서력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독서문화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